

위치가 어디인가를 밝히면 왕검성의 위치를 알 수 있겠다.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5세기말 6세기초의 고구려인의 견해에 의할 때 지금의 평양이다. 그리고 燕 및 秦·漢代의 장성의 동쪽 끝이 지금의 요하에 이른다. 이는 구체적 踏査者의 기록과 실물 사진에 의해서 확인되어 진다. 따라서 史記나 漢書에서 말하는 遼河는 지금의 요하이요, 낙랑군은 평양지역이며, 평양일대에서 나오는 중국계 유물의 다수는 낙랑군시대의 그것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B.C. 3세기초를 전후한 시기에 반도의 서북지역의 토착세력이 요동방면으로부터의 燕의 압박에 자극받아 국가를 형성하였느냐, 아니면 이무렵 연의 침공을 받아 요하유역방면에 있던 고조선의 중심부가 평양일대로 이동하여와서 토착세력과 결합하여 보다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였던 것이냐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도 서북지역의 지석묘 석관묘 단계의 문화와 이른 시기의 세형동검문화와의 계승관계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곧 양자의 계승관계에서 요하방면으로부터의 영향이 非本質的인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이는 移動說을 검증하기 위해 요하유역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요령성 청동기문화의 다양한 綜態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의 문제와 연결되는 바이다. 비파형동검문화의 地域別 性格과, 中國 고문헌에 등장하는 그 지역의 東胡 山戎 令支 孤竹 등의 실체 및 나아가 遼西地域에 청동기문화단계의 시기에서의 기후변동 문제와 연관된 생태학적 연구등이 과제로 제기되어진다.

解放直後の 文壇과 越北文人

權 寧 珉

일본의 패전으로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의 가능성이 열렸고 문단에 있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문학을 건립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명제에 따라 친일문학가를 제외한 전문단인이 참여하는 문단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민족문학 건설이라는 대명제하에서도 문학에 대한 견해의 차이, 민족문학의 방향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말미암아 해방직후의 문단은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더우기 미·소에 의한 분단과 그에 따른 상이한 사회체제의 성립은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가깝게는 월남·월북 문인이라는 독특한 범주의 문인을 낳게 되었고, 나아가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의 문단상황도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직후 가장 먼저 건설된 문단조직은 과거 카프의 서기장이었던 林和에 의해 주도된 <朝鮮文學建設本部>(45. 8. 16)였다. 이 단체는 과도기적 성향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또한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은 범문단조직이었다. (<자료 I> 참조)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해 대립하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식민지 시대 민족문학과 순수문학을 주장하던 일군의 문인들이었으며, 또 한 세력은 명확한 계급적 입장을 내세우려는 소위 카프 비해소파에 속하는 문인들이었다. 이들은 각각 자기의 조직을 결성하는데 <中央文化協會>(45. 9. 8)와 <朝鮮프롤레타리아文學同盟>(45. 9. 17, <자료 II> 참조)이 그것이다.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은 공산당의 권유로 통합, <朝鮮文學同盟>(46. 2. 9, <자료 III> 참조)이 결성되고 <조선문학건설본부>측이 주도권을 잡는다. 이에 불만을 품은 <예맹>측의 일부 문인이 월북을 하는데 이들을 제 1차 월북파라 할 수 있다(<자료 VI> 참조). 이들의 월북시기는 <조선문학동맹>결성에서부터 「조선문학가대회」(46. 2. 8)적후까지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문예운동의 이념적 정통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조선문학동맹>에서 소외됨에 따라, 또한 38선이 공고화되면서 북쪽의 문예운동의 정비가 요청됨에 따라 월북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결성에 가담하고 이후 북쪽문단의 주도권을 잡는다.

「전국문학자대회」를 통해 <조선문학동맹>은 <조선문학가동맹>으로 개편된다(46. 2. 9, <자료 IV> 참조). 그러나 이들은 ‘정관사 위폐사건’ ‘철도파업’ 등으로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박헌영이 수배되는 등 정치·사회적인 압박이 심해지자 47년 4월 예정된 제 2회 「전국문학자대회」를 무기연기시키고 이미 월북한 박헌영을 따라 47년 말에서 48년 초에 걸쳐 대거 월북한다. 이들을 제 2차 월북파라 할 수 있다(<자료 VII> 참조. 이들 가운데 1930년대 모더니스트가 포함되어 있음은 유의할 만한 일이다). 이들은 대체로 6.25 이후 박헌영 등 남로당 일파와 함께 숙청되는 운명에 처한다. 지도부가 대거 월북한 상태에서 <조선문학가동맹>은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해체된다. 제 2차 월북에 참가하지 못하고 서울에 잔류하였던 문인들이 6.25중 서울에 온 李泰俊·安懷南·吳章煥 등을 따라 올라갔는데 이를 제 3차 월북파라 할 수 있다(<자료 VIII> 참조).

한편 <중앙문화협회>를 구성하였던 우익문단은 <全朝鮮文筆家協會>(46. 3. 13)와 <朝鮮青年文學家協會>(46. 4. 4)로 조직을 개편하고 다시 이를 통합, 중간파의 梁柱東등을 흡수하여 <韓國文學家協會>(49. 12. 17)를 결성하였다. 이후 이들은 남쪽 문단을 주도하여 나간다.

북쪽의 문단 상황을 보면 평양을 중심으로 <平壤藝術文化協會>(45. 8)가 최초로 결성되는데 여기에는 崔明翊·兪恒林·黃順元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련의 진주에 따라 <朝蘇文化協會>(45. 1)가 결성된다. 자유주의적 색채를 포함하고 있는 <평양예술문화협회>에 불만을 품은 일군의 문인들이 <평남지구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46. 1)을 결성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지역별로 넓혀감에 따라 <평양예술문화협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만다. 이들과 제 1차 월북파가 합류하여 조직한 것이 <北朝鮮文學藝術總同盟>(46. 3. 25)으로 이들은 이후 제 2차 월북파까지 포함하여 세를 확장시킨다. 그러나 재북파와 제 1차 월북파, 그리고 제 2차 월북파와 趙基天등 '소련파'와의 알력이 형성되며 종전이후 제 2차 월북파가 숙청됨으로써 북한 문단은 확립되어 1961년 3월 <朝鮮文化藝術總同盟>이 결성된다.

이와 같이 해방직후의 문단은 정치적인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월북문인이라는 문인 부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분단의 상황과 이데올로기 문제로 급기시 되어 문학사연구에 하나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월북이라는 행위 및 월북 이전의 활동은 이미 문학사적인 사실로 고정되어 있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학사의 올바른 복원과 민족문학의 정신사적 연속성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발표는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資料 I> 朝鮮文學建設本部(1945. 8. 18)

朝鮮文學建設本部中央協議會

書記局 書記長：林 和

朝鮮文學建設本部中央委員長：李泰俊

小說部：李箕永 朴泰遠 安懷南 李泰俊 韓雪野 金南天

詩部：金起林 金光均 吳章煥 林 和 鄭芝溶

評論部：李源朝 朴致祐 徐寬植 趙潤濟

外國文學部：金晉燮 金三奎 金光燮 李敦河 崔珽宇(「文化戰線」창간호)

〈資料Ⅱ〉 朝鮮프롤레타리아文學同盟 (1945. 9. 30)

中央執行委員會

委員長：李箕永

書記局 書記長：朴石丁

中央執行委員：李箕永 韓雪野 趙重滾 朴勝極 權 煥 金斗鎔 李北鳴 韓 曉 朴芽枝 洪九 朴世永 李東珪 朴石丁 宋完淳 嚴興燮 安東洙 趙碧岩 尹崑崗 宋 影 申鼓頌 李周洪 鄭青山 金承久 朴八陽 尹基鼎

小說部委員：李箕永 韓雪野 嚴興燮 李東珪 安東洙 洪 九

詩部委員：權 煥 尹崑崗 朴世永 朴芽枝 趙碧岩

戲曲 시나리오部委員：宋 影 金承久 申鼓頌 朴英鎬

兒童文學部委員：宋完淳 鄭青山

外國文學部委員：李洪鍾 權 煥 金章煥

評論部委員：金斗鎔 尹基鼎 韓 曉 朴石丁 朴勝極

盟員：金台俊 金斗鎔 金午星 金昌述 金海剛 金兌鎭 金承久 金章煥 金嵐人 金炳昊 金友哲 金丹美 金鈞奉 金大均 具直會 權 煥 朴勝極 朴世永 朴芽枝 朴石丁 朴魯春 朴八陽 朴完植 朴榮濬 朴英鎬 金海岩 金容浩 朴露兒 徐寅植 孫楓山 宋 影 宋完淳 申鼓頌 安東洙 安含光 安龍灣 嚴興燮 尹基鼎 尹崑崗 尹世重 尹圭涉 尹石重 李箕永 李東珪 李周洪 李北鳴 李根榮 李元壽 李洪鍾 李載煥 李地用 李 燦 李羈瑟 李園友 鄭青山 趙碧岩 趙重滾 丁民雨 趙靈出 趙虛林 池奉文 秦雨村 崔仁俊 韓雪野 韓 植 韓 曉 韓鳳植 韓載成 玄卿俊 玄東炎 洪曉民 洪淳義 洪 九(「藝術運動」창간호)

〈資料Ⅲ〉 朝鮮文學家同盟(1946. 2. 9)

中央執行委員會

委員長：洪命熹

副委員長：李泰俊 李箕永 韓雪野

執行委員：權 煥 李源朝 林 和 金台俊 金南天 安懷南 韓 曉 金起林 尹基鼎 鄭芝溶 李秉岐 金午星 安含光 朴世永 趙碧岩 李東珪 洪 九

書記局 書記長：李源朝

總務部：金光均 朴贊日

組織出版部：洪 九

小說部：安懷南(委員長) 李箕永 韓雪野 蔡萬植 嚴興燮 朴泰遠 許 俊 李泰俊 崔明翹 金南天 玄 德 朴魯甲 李東珪 洪 九

詩部：金起林(委員長) 林 和 權 煥 鄭芝溶 尹崑崗 李庸岳 吳章煥 朴世永 金光均 趙碧岩

評論部：金台俊(委員長) 李源朝 朴致祐 尹圭涉 金午星 金南天 韓 曉 安含光 林 和 權 煥 尹基鼎

戲曲部：李曙鄉(委員長) 朴英鎬 金兌鎭 申鼓頌 咸世德

農民文學部：權 煥(委員長) 朴勝極 安懷南 李箕永 李源朝 金南天 李泰俊 韓 曉 李根榮(事務長)

兒童文學部：鄭芝溶(委員長) 玄 德 李東珪 李周洪 楊美林 任元鎬 朴世永 宋完淳

尹石重 李泰俊 朴芽枝 洪 九 尹福鎮(事務長)

古典文學部：李秉岐(委員長) 金台俊 梁柱東 李熙昇 林 和 趙潤濟 申重鉉

外國文學部：金晉燮 崔珽宇 李敷河 裴 澹 李源朝 李洪鍾 金東錫 薛貞植

(「文學」창간호)

〈資料Ⅳ〉朝鮮文學家同盟(1947.4)

中央執行委員會

委員長：洪命熹

副委員長：李秉岐 李泰俊

書記局 書記長：金南天

第二書記長·總務部長：洪 九

中央執行委員：洪命熹 李秉岐 李泰俊 金南天 李源朝 林 和 趙碧岩 洪 九 金起林
安懷南 金午星 梁柱東 廉想涉 曹 雲 蔡萬植 朴芽枝 朴泰遠 朴魯甲

組織部長：裴 澹

出版部長：玄 德

評論部委員長：梁柱東

外國文學部委員長：薛貞植

詩部委員長：金起林

詩部組織部長：金光均

小說部委員長：安懷南

戲曲部委員長：李曙鄉

兒童文學部委員長：鄭芝溶

古典文學部委員長：李秉岐

(1947年「藝術年鑑」)

〈資料Ⅴ〉分野別 越北文人

〔小說家〕權 煥 金南天 金萬善 金北原 金史良 金沼葉 金永錫 朴魯甲 朴勝極 朴贊
謨 朴泰遠 安東洙 安龍灣 安懷南 嚴興燮 兪恒林 尹基鼎 李根榮 李箕永 李東珪 李北鳴
李善熙 李泰俊 鄭人澤 趙重滾 朱永涉 池河蓮 崔明翊 崔承一 崔仁俊 韓雪野 許 俊 玄
卿俊 玄 德 洪 九 洪命熹(36名)

〔詩人〕金常民 金尙勳 金朝奎 金學鐵 閔丙均 朴石丁 朴世永 朴芽枝 朴八陽 白 石
白仁俊 楊雲閒 呂尙玄 吳章煥 兪鎮五 李秉哲 李時雨 李庸岳 李園友 李 燦 李 洽 林
炳哲 林學洙 曹南嶺 趙碧岩 趙靈出 曹 雲 趙虛林(28名)

〔評論家〕金東錫 金斗鎔 金秉遠 金永鍵 金午星 金友哲 金台俊 閔丙徽 朴致祐 裴澹
徐寅植 申南澈 安 漢 安含光 尹圭涉 李甲基 李北滿 李源朝 林 和 蔡廷根 韓 植 韓
曉(22名)

〔劇作家·兒童文學家·其他〕康承翰 金承久 金永八 金兌鎮 宋 影 宋完淳 申鼓頌
尹福鎮 尹世重 朴英鎬 李曙卿 任西河 任之鎬 韓泰泉(14名)

〈資料Ⅵ〉第一次 越北派

李箕永 韓雪野 安 漢 崔明翊 安含光 李東珪 韓 植 崔仁俊 金友哲 安龍灣 李園友